

#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친구의 지원 및 적응과의 관계

## Relationship of Social Skills &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to Adjustment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군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심희옥

Dept. of Home Management, Kunsan National Univ.

Assist. Prof. : Hee-og Sim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결과

IV.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skills and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to adjustment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Subjects were enrolled in the fifth, sixth, 1st, & 2nd grades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The instruments wer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 Friends, Child Depression Inventory, and Antisocial Behavior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 between social skills and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The more social support from family children and adolescents had, the less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they reported. For depression, children and adolescents showed a significant sex difference. In the case of antisocial behavior, only adolescents revealed a significant sex difference. Depression was explained by social support from family most for both children and adolescents. Antisocial behavior was explained by social skills most especially for children. The result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and social support on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s.

### I. 서론

사회적 기술이라고 불리는 대인관계에서의 기술이 생존(survival)을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묘사되는 것(Dishion, Loeber, Stouthamer-Loeber, & Patterson, 1984)은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문제와 관

련되어 우울, 불안,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부적응에 기여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심희옥, 1998; Cole, 1990, 1991; 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McGee, Feehan, Williams, & Anderson, 1992; Merrell & Gimpel, 1998; Puig-Antich, Lukens, Davies, Goetz,

Brennan-Quattrock, & Todak, 1985; Walker, Colvin, & Ramsey, 1995)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부적응은 크게 내·외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적인 부적응으로 우울성향을, 외적인 부적응은 반사회적 행동을 고찰하였다. 김은정과 오경자(1992)에 의하면, 임상집단 뿐 아니라 정상집단의 아동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사례가 꽤 있고 청소년기에 이르면 우울증의 빈도는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우울성향은 외적인 부적응과는 달리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일시적인 듯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온전한 발달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여러 내적인 부적응 행동 중 대표격으로 사회적 기술문제와 관련되어 연구자들의 관심대상이다(Merrell & Gimpel, 1998). 또한 요즘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고 이로 인한 우려와 피해가 또래와 학교는 물론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가벼운 행동으로는 거짓말, 심한 경우는 누군가를 구타하거나 패싸움 같은 비행, 심각한 경우는 일 등 사회적으로 규정된 행동을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행동 역시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여야 할 부적응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들 부적응 행동이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변인들과 어떻게 관련되고 어떤 경로로 발달되어질 수 있는지 규명해 보는 일은 의의 있는 일이다.

우울한 많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철회되어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갖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 훈련이 우울한 아동을 치료하는데 쓰인다(Gresham & Cavell, 1986).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친구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하며, 아동의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그로 인한 심리적 적응여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Merrell & Gimpel, 1998). 우울한 아동이 타인과 상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가 있는데 Puig-Antich와 그의 동료들은(1985) 사춘기 이전의 우울한 아동이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또래와의 심리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워하였다고 한다. 또한 Cole(1990, 1991)은 3, 4학년생의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우울이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다. Hymel과 그의 동료들(1990)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5학년까지의 종단연구에서 2학년 때의 사회적 무능감과 사회관계에서의 어려움이 5학년 때의 외로움이나 자기 가치감 같은 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내·외적 장애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McGee와 그의 동료들(1992)은 청소년 이전기 아동과 청소년기 아동 중 청소년 이전기 아동에게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과 우울성향이나 반사회적 행동 같은 내·외적인 부적응이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유능감과 외적인 부적응이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기술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Dishion와 그의 동료들(1984)은 고등학교 남학생의 대인관계 기술과 비행행동과의 관련을 보고하고, Patterson과 Dishion(1985)의 연구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 비행 또래와 어울려 비행행동에 연루될 수 있음을 보고한다. 같은 맥락의 연구로 Snyder, Dishion과 Patterson(1986)도 사회적 기술 부족이 비행 또래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 해결 기술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이 보고하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향상이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상술한 연구들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내·외적 적응에 대인관계에서의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하여 개인적인 자질이나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이 풍부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잘 진하고 무례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어 가족과 친구의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McFall(1982)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이란 개인이 매일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나 방략으로 친구를 사귀거나,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타인의 사회적인 개입에 대한 요청에 응하는 것 등이다. 사회적 기술이 가능한 지원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음은 물론 사회망(social networks)을 발달시키고, 지원을

유지하고 이용하는데 관여한다고 한다(Cohen, Sherrod, & Clark, 1986). 실제로 Cohen 등 (1986)과 Sarason, Sarason, Hacker와 Basham(1985)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지원간에 관련이 있었듯이,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가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아동과 청소년이 적절하게 발달하는데는 바람직한 사회적인 관계가 필수적인데 두 가지로 그들의 사회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가 수직적인 관계로 더 많은 지식과 힘을 가진 부모나 가족과의 기본적인 애착을 생각할 수 있고, 두번째는 동등한 힘을 가진 수평적인 관계가 가능한 친구와의 관계이다.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보호와 안전이 제공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동이나 경쟁, 그리고 친밀감 등이 형성되기(Hartup, 1989)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적절한 관계나 정신적인 지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하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적절한 정서적인 지지나 지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심리·행동적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강성희, 1991; 심희옥, 1995; 한미현과 유안진, 1996; Sim & Vuchinich, 1996; Windle, 1992).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과 부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원이 많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내적이거나 외적인 면에서 적응적임을 보고한다. 먼저 강성희(1991)는 4, 5, 6학년생이 지각한 또래, 가족, 교사의 지지는 교사, 부모가 보고한 문제행동과 부적응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Windle(1992)은 청소년의 어려운 기질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의 지지는 더 적은 우울, 비행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심희옥(1995)은 또한 청소년에게서 부모, 친구, 선생님의 지원을 합한 사회적 지원과 비행행동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4, 6학년생의 연구는 친구의 지지가 불안행동, 위축행동, 미성숙행동을 적게 해주며, 가족의 지지는 위축행동, 공격행동을 적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Sim과 Vuchinich(1996)는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가 부정적일수록 그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행한다고 보고한다. 심희옥(1997)은 4, 5, 6학년생에게서 부모, 친구의 지원과 우울성향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위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사회적 기술과 부모나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되는 변인들이어서 이들의 적응에 중요한 변인들로 사료된다. 대인관계에서의 기술인 사회적 기술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각각과 부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지원과의 관련, 그리고 이들 변인과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지원간의 있을 수 있는 결합된(Conjoint)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적응의 예언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또한 부적응과 함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지원간의 있을 수 있는 관계 즉 어느 변인이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에 더 깊이 관여하는지 등을 좀더 세밀히 규명하고, 아동과 청소년간의 발달시기상의 차이로 이들 변인이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행동적 적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에 관한 발달적 자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첫째, 경로분석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 친구의 지원과 부적응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혀 보고, 둘째, 이들 변인들 중 부적응을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무엇인지, 즉 어느 변인이 부적응을 더 잘 설명해 주는지를 살펴보고,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가족, 친구의 지지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지, 성별로는 어떠한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가족·친구의 지원에 대한 지각은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각각과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2.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가

족·친구의 지원에 대한 지각 중 어느 변인 순서로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이 각각 설 명되는가?

3.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가족·친구의 지원에 대한 지각에서 아동과 청소년간에 차이가 있는가?
4.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가족·친구의 지원 지각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생과 중학교 1, 2학년생이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년과 6년생은 아동으로, 중학교 1년과 2년생은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연구대상자의 아동/청소년, 성별 분포는 <표 1과 2>와 같다. 우울성향의 연구 대상자의 경우 아동이 396명, 청소년이 420명으로 총 816명이며,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아동이 380명이고 청소년은 411명으로 총 791명이다. 연구대상자를 이처럼 내·외적 부적응, 즉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눈 이유는 문항수의 증가로 불충실한 응답으로 인한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연령의 범위는 10-15세로, 아동의 평균연령은 우울성향의 대상자가 11.50세,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11.48세이었다.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우울성향의 대상자가 13.40세,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13.39세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0.9-52.1%, 대학교 졸업이 27.4-27.8%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 40-41.1%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이 28-30.3%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9.8-61.4%이고 대학교 졸업이 15.2%이었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 54.5-56%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이 11-12.2%였다.

<표 1> 우울성향 연구대상자의 분포 ( ) : %

성별	남	여	계
아동/청소년			
아동	183(22.43)	213(26.10)	396(48.53)
청소년	215(26.35)	205(25.12)	420(51.47)
계	398(48.78)	418(51.22)	816( 100)

<표 2> 반사회적 행동 연구대상자의 분포 ( ) : %

성별	남	여	계
아동/청소년			
아동	173(21.87)	207(26.17)	380(48.04)
청소년	212(26.80)	199(25.16)	411(51.96)
계	385(48.67)	406(51.33)	791( 100)

### 2. 측정도구

#### 1) 사회적 기술

Inderbitzen과 Foster(1992)가 만든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문항의 반은 긍정, 반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는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를 "정말로 아니다"에서 "정말로 그렇다"의 1-6점 척도로 평가한다. 긍정적인 행동의 한 문항의 예는 "친구가 숙제를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준다"이고, 부정적인 행동의 한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애들이 실수를 하면 비웃는다"이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는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연구 대상이 똑같이 .73이었다

#### 2) 가족과 친구의 지원

가족과 친구의 지원은 Procidano와 Heller(1983)의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PSS-Fa) & from Friends(PSS-Fr)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정신적인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족과 친구에 대해 각각 20문항씩

총 4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과 일치하는 정도를 “정말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로 1-4점 척도로 응답한다. 가족의 지원에 대한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나의 가족은 내게 필요한 정신적인 도움을 준다”이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연구 대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 가족의 지원의 경우 우울성향에서 .88과 반사회적 행동에서 .89를 나타내었고, 친구의 지원은 각각 .87과 .86을 나타내었다.

### 3) 우울성향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2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Kovacs(1981)의 Child Depress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느낌을 1-3점 척도로 평가한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1)나는 때때로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2)나는 울고 싶은 기분인 날도 많다 3)나는 매일 울고 싶은 기분이다”이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87을 나타내었다.

### 4)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콕크루와 문은영(1993)이 만든 44개 문항의 반사회적 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번 한해 동안 얼마나 자주 각 문항의 행동을 했는지 “없다”에서 “많다”까지 1-5점 척도로 응답한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이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는 .87이었다

##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인 K시내의 초등학교 세 곳과 중학교 두 곳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번안과정에서 적합한 언어 선택과 이해를 위해 연구의 해당 연령 학생과 학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들은 연구 보조자 대학생들을 통해 배부되었다. 배부된 질문지들은 현장에서 응답된 후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

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다. 연구문제 1의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하였고, 연구문제 2의 부적응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3과 4의 주요 변인들간의 아동 대 청소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아동 대 청소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우울성향의 경우,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지각하고( $r(816) = .19$ ), 친구의 지원을 많이 지각하며 ( $r(816) = .27$ ), 그리고 우울성향을 더 적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816) = -.16$ ).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r(791) = .21$ ), 친구의 지원을 많이 지각하며( $r(791) = .28$ ),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r(791) = -.26$ ).

### 2.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가족·친구의 지원에 대한 지각은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각각과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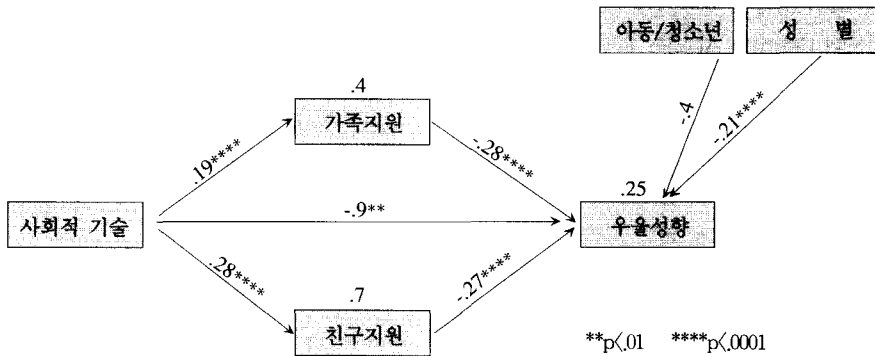
연구문제 1의 변인들간의 관련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아동과 청소년을 합한 경로분석결과에서 <그림 1>의 우울성향의 경우, 사회적 기술과 가족·친구지원이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가족과 친구의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친구의 지원을 많이 지각할수록 우울을 더 적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덜 우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반사회적

〈표 3〉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변인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b>우울성향</b>						
1. 성 별 <sup>a</sup>	-					
2. 아동/청소년	.05	-				
3. 사회적 기술	-.33****	.10**	-			
4. 가족지원	.04	-.15****	.19****	-		
5. 친구지원	-.13***	-.04	.27****	.32****	-	
6. 우울성향	-.15****	-.00	-.16****	-.38****	-.36****	-
<b>반사회적 행동</b>						
1. 성 별 <sup>a</sup>	-					
2. 아동/청소년	.06+	-				
3. 사회적 기술	-.32****	.09**	-			
4. 가족지원	.03	-.15****	.21****	-		
5. 친구지원	-.15****	-.05	.28****	.33****	-	
6. 반사회적 행동	.23****	.09**	-.26****	-.19****	-.00	-

+p<.10 \*\*p<.01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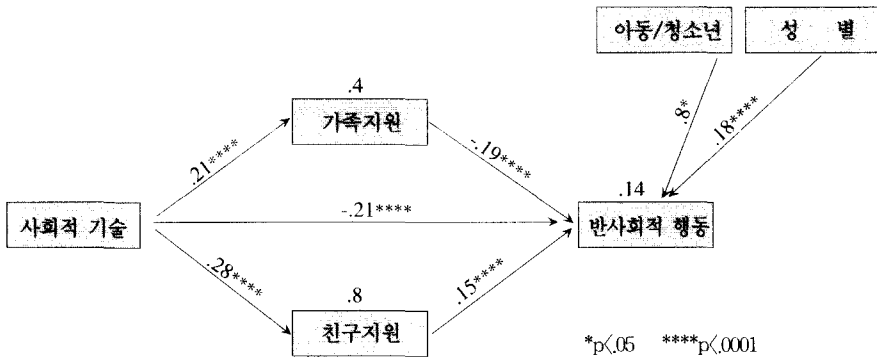
<sup>a</sup>성별 여자=0, 남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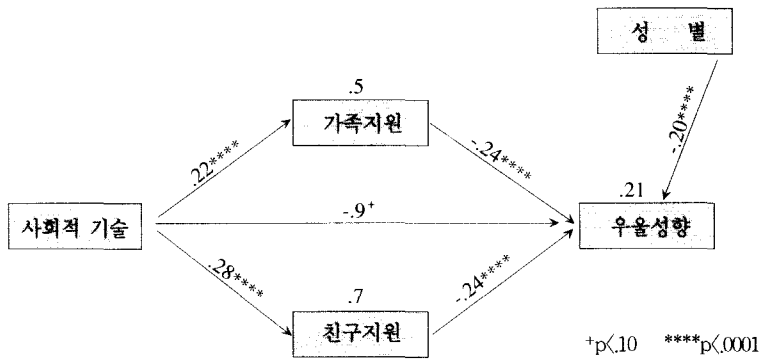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기술, 가족·친구지원과 우울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행동의 경로분석결과를 보면, 가족의 지원을 많이 지각할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별, 사회적 기술, 가족 지원은 통제된 상태에서 친구의 지원을 많이 지각하는 경우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 p<.0001). 청소년이 아동보다 반사회적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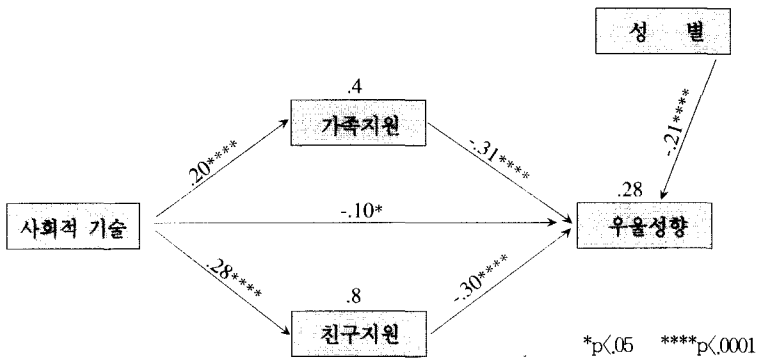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해 본 경우,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은 아동과 청소년을 합친 상황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 모두 우울성향에서 남녀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과 4).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우울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성별간의 차이가 아동보다 청소년에게서 더 두드러져 청소년기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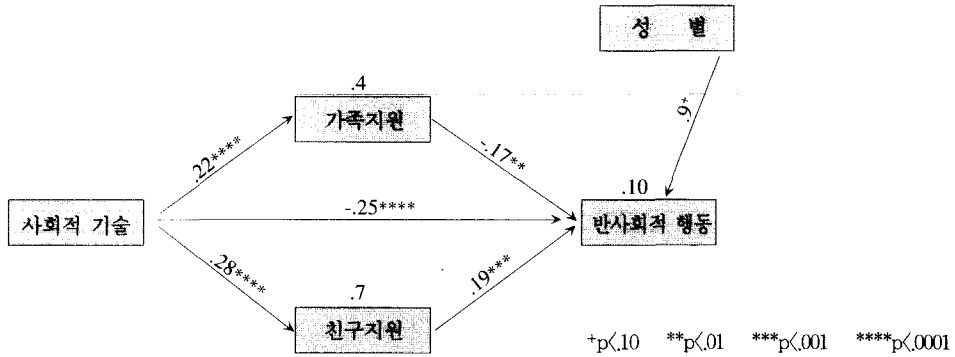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기술, 가족·친구지원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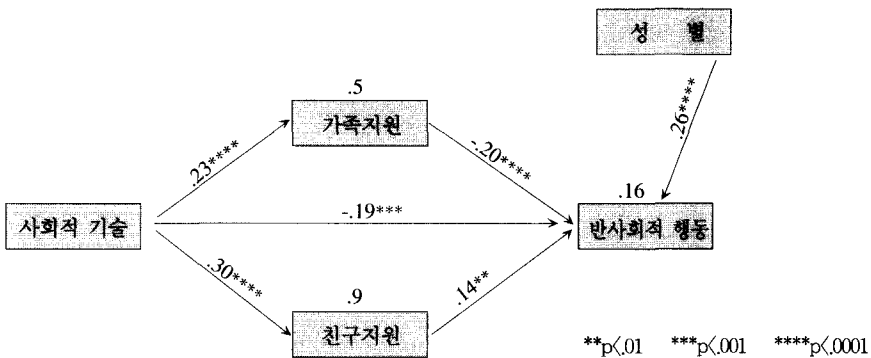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의 사회적 기술, 가족·친구지원과 우울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그림 4>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가족·친구지원과 우울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그림 5〉 아동의 사회적 기술, 가족·친구지원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그림 6〉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가족·친구지원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월등하게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와 6).

3.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가족·친구의 지원에 대한 지각 중 어느 변인 순서로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이 각각 설명되는가?

연구문제 2의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는 변인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4>에 의하면, 우울성향을 설명해 주는 변인으로 가족 지원이 가장 중

요하고 그 다음은 친구지원 그리고 성별과 사회적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성향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한 분석결과는 합친 경우와 변인의 순서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사회적 기술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은 가족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한 경우, 아동의 경우는 사회적 기술이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청소년의 경우는 성차이가 가장 기여를 많이 하며 그 다음은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로 나타났다.



〈표 4〉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별, 사회적 기술 및 가족·친구지원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beta$	부분 R <sup>2</sup>	Adj-R <sup>2</sup>
<b>우울성향</b>				
가족지원	-.24	-.27	.15	.25
친구지원	-.26	-.27	.06	
성별 <sup>a</sup>	-3.14	-.21	.03	
사회적 기술	-.04	-.10	.01	
<b>반사회적 행동</b>				
사회적 기술	-.24	-.21	.07	.14
가족지원	-.45	-.19	.03	
성별 <sup>a</sup>	7.41	.18	.02	
친구지원	.39	.15	.02	
아동/청소년	3.29	.08	.01	
<b>아동</b>				
사회적 기술	-.24	-.25	.07	.10
가족지원	-.37	-.17	.02	
친구지원	.43	.19	.01	
성별 <sup>a</sup>	3.09	.09	.01	
<b>청소년</b>				
성별 <sup>a</sup>	11.29	.26	.08	.16
가족지원	-.51	-.20	.05	
사회적 기술	-.24	-.19	.02	
친구지원	.38	.14	.02	

<sup>a</sup>성별 여자=0, 남자=1.

4.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가족·친구의 지원

지각에서 아동과 청소년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을 위한 t-검증 결과 〈표 5〉를 보면, 사회적 기술의 발달정도는 청소년이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에서 아동이 청소년보다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로부터의 지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같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가족·친구의 지원 지각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를 위한 t-검증 결과 〈표 6〉을 보면, 사

〈표 5〉 사회적 기술과 가족·친구의 지원에 대한 아동/청소년간의 t-검증 결과

변인	아동/청소년	M	SD	t
사회적 기술	아동	164.82	17.69	-3.00**
	청소년	168.55	17.78	
가족지원	아동	56.55	8.00	4.29****
	청소년	54.03	8.72	
친구지원	아동	52.33	7.70	1.26
	청소년	51.65	7.89	

\*\*p<.01 \*\*\*\*p<.0001

〈표 6〉 성별로 사회적 기술과 가족·친구의 지원에 대한 아동/청소년간의 t-검증 결과

변인	성별	아동/청소년	M	SD	t
사회적 기술		아동	158.49	16.55	-2.44*
		청소년	162.76	18.07	
가족지원	남	아동	57.11	7.30	3.60****
		청소년	54.26	8.32	
친구지원		아동	51.68	7.52	1.73+
		청소년	50.33	7.97	
사회적 기술	여	아동	170.25	16.83	-2.76**
		청소년	174.61	15.32	
가족지원		아동	56.07	8.54	2.64**
		청소년	53.79	9.13	
친구지원		아동	52.90	7.83	-.17
		청소년	53.02	7.59	

+p<.10 \*p<.05 \*\*p<.01 \*\*\*\*p<.001

회적 기술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청소년이 아동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원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아동이 청소년보다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술과 가족·친구지원에 대한 지각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논의

아동과 청소년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 이를 저해

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일은 인간발달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거리이며 중요한 일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과 이들 변인들 간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며, 부적응의 예언력을 높일 수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온전하게 발달하고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 모두 사회적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원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좋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신이 더 많은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꿔 말하면, 부모나 친구와 지지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사회적 기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가족과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가질수록 덜 우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인 지원이 많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고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 모두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성별, 사회적 기술과 가족의 지원을 통제 한 가운데 반사회적 행동을 더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비행행동에 더 관여 할 수 있음을 보인데, 본 연구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미 반사회적 행동에 많이 연루된 친구들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서 더 많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 것인 지도 모른다. 즉 친구의 지지가 긍정적이기보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의 정서적 지지였을 수 있다.

가족과 친구의 정서적 지지를 통제 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술이 여전히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주고 있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사회적 기술이 풍부하면 할수록 더 적응적이어서 대인관계에서의 적절한 기술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우울성향은 아동과 청소년간에 다 성별차이가 분명했다. 이는 사춘기 이전에는 우울에서 성차가 불일치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명히 더 우울해한다고 하듯이(Nolen-Hoeksema, 1994), 이 연구에서 아동으로 초등학교 5년과 6년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미 이 아동들간에 우울에서 남녀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사회적 행동은 청소년기에야 남녀차이가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더 연루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정도는 가족의 지원 정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가족의 정서적 지지는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변인이 특히 아동의 경우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 이전기 아동에게서 사회적 기술 부족이 비행또래와 어울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Patterson과 Dishion(1985) 그리고 Snyder, Dishion과 Patterson(1986)의 연구에서 설명을 구할 수 있겠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이들이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기 쉬울 것이고 이들과 공격적이고 숙련되지 못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을 배울 기회가 적을 수 있어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익히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인지적으로 덜 성숙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이 아동의 행동적 적응에 중요함은 주목을 요한다.

사회적 기술은 아동보다 청소년이 더 발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생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인 요구나 기대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을 하게되고 인지와 정서적인 성숙으로 타협이나 양보 등 대인관계기술이 발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청소년보다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기에 이르면서 사고의 발달로 청소년이 가족의 행동이나 정서적인 지지에 더 냉철해 지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부모로부터 더 독

립적이 되면서 정서적으로 부모로부터 거리를 더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발달 양상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사회적 기술, 가족, 친구지원과 부적응과의 전반적인 경로관계에서 아동과 청소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과 친구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여 적응적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동은 성별, 사회적 기술과 가족의 지원을 통제할 경우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릇된 행동에 더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을 수 있는 친구들간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서적 지지에 주목해야겠다. 심리적인 적응에는 가족의 지원이 중요하고, 행동상의 적응에는 청소년보다 특히 아동의 경우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청소년보다 부족한 아동이 이로 인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의 지지를 얻어 반사회적 행동에 더 참여할 수 있음에 주목을 요한다. 또한 사회적 기술은 청소년이 아동보다 더 발달되어 있고, 청소년보다 아동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생각해보면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나 경제환경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반화시키는데는 제한이 따를 수 있겠다. 둘째, 자료를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보고 식으로 수집하였는데 관찰법이나 면접 등이 보충자료로 사용되고 또한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생은 아동으로, 중학교 1, 2학년생은 청소년으로 간주한 것은 인위적인 구분일 수 있음을 밝힌다.

상술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그들의 적응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내·외적인 부적응을 증가시키는 심리사회적인 변인들을 밝히고, 변인들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부적응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둘째, 사

회적 기술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우리 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연구가 미흡한데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기술 부족이 직접적으로 부적응에 영향을 주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 지각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1) 강성희 (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김은정, 오경자 (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상.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117-128.
- 3) 광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4) 심희옥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및 부적응. *아동학회지*, 16(1), 89-98.
- 5) 심희옥 (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6) 심희옥 (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7)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8) Cohen, S., & Sherrod, D. R., & Clark, M. S. (1986). Social skills and the stress-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63-973.
- 9) Cole, D. A. (1990). Relation of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to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 422-429.
- 10) Cole, D. A. (1991). Preliminary support for a competency-based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81-190.
  - 11) Dishion, T. J.,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Patterson, G. R. (1984). Skill deficits and male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1), 37-54.
  - 12)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13) Gresham, F. M., & Cavell, T. A. (1986). Assessing adolescent social skills. In R. G. Harrington(ed.), *Testing adolescents: A reference guide for comprehensive psychological assessments* (pp. 93-123). Kansas: Test corporation of America.
  - 14)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15)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6), 2004-2021.
  - 16) Inderbitzen, H. M., & Foster, S. L. (1992).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4*(4), 451-459.
  - 17)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18) McFall, R. (1982).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kills. *Behavioral Assessment, 4*, 1-33.
  - 19) McGee, R., Feehan, M., Williams, S., & Anderson, J. (1992). DSM-III disorders from age 11 to age 15 year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1*(1), 50-59.
  - 20) Merrell, K. W., & Gimpel, G. A. (1998).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treatment*. New Jersey: LEA.
  - 21) Nolen-Hoeksema, S. (1994). An interactive model for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4), 519-534.
  - 22) Patterson, G. R., & Dishion, T. J. (1985). Contributions of families and peers to delinquency. *Criminology, 23*(1), 63-79.
  - 23) Procidano, M. E., & Heller, K.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24.
  - 24) Puig-Antich, J., Lukens, E., Davies, M., Goetz, D., Brennan-Quattrock, J., & Todak, G. (1985). Psychosocial functioning in prepubertal major depressive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500-507.
  - 25) Sarason, B. R., Sarason, I. G., Hacker, T. A., & Basham, R. B. (1985). Concomitants of social support: Social skill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2), 469-480.
  - 26) Sim, H., & Vuchinich, S. (1996). The Declining effects of family stressors on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408-427.
  - 27) Snyder, J., Dishion, T. J., & Patterson, G. R. (1986).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ssociating with deviant peers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1), 29-43.
  - 28) Walker, H. M., Colvin, G., & Ramsey, E. (1995). *Antisocial behavior in school: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Pacific Grove: Brooks/Cole.
  - 29) Windle, M. (1992).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Interrel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1), 1-21.